

성령에 의해 책망 받을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8).

: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죄의 책망은 땅 위의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단 한 가지 관계만을 고려하게 하는데, 바로 주님과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양심의 깊은 곳에서 알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정의감을 갖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로 인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기적은 주께서 죄를 용서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이며, 그 용서는 주님의 속성에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죄에 대해 책망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갈보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통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용서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특권을 얻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러한 차원에서 용서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아 다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속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넣어주심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신 주님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책망 받을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8)

용서의 진정한 의미

오늘 챔버스가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깨닫게 되는 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나 성령에 의한 죄의 책망은 땅 위의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단 한 가지 관계만을 고려하게 하는데, 바로 주님과와의 관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보면 성령의 책망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후회와 진정한 회개의 차이를 말하며, 성령님의 책망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겸손을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반면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죄의 가책만을 원한다. 가인의 ‘후회 체험’이 전형적인 것으로서 아마도 그보다 덜한 죄악을 범했어도 그는 후회를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 중에 실제 살인자는 적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잠정적으로 살인자들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요일3:15)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길 때 늘 겸손을 유지하는 비결은,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존재였을 지를 성령님에 의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실 때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서운 죄를 보게 하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챔버스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정의감을 갖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 무서운 죄성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두려움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정의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무섭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용서하는 것과 성령의 책망을 통해 용서의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찰스 스펔전 목사님의 책 [구원의 은혜]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므로 하나님만이 그 죄를 없앨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빛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탕감해 주실 수 있고, 또

한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그분에게 범한 죄를 지워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챔버스를 통해 배우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구속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골고다 십자가의 희생물로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구원을 받고 천국의 특권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아 다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은 기적입니다. 개별적 인간이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것은 기적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에 맞게 변화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래전 ‘밀양’이라는 영화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한 주인공이 참 어렵게 형무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절규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은 아직도 아들을 잃은 고통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용서받을 때, 사실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용서와 회개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용서로 들어가기 위해 회개할 때,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힘들어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 아픔이 클수록 진정한 용서를 경험합니다.

묵상 질문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진정으로 애통한 경험이 있습니까?

묵상레시피 ■ 시편 32:1-11 + 요한복음 16:8

하나님이 시인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 5절)

시인이 자복과 자백을 통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3-5절)

이제 시인은 무엇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6-9절)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며 권면합니까? (10-11절)

허물, 죄, 정죄(1-2절)

하나님은 시인에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도록 요구하신다. 시인은 ‘죄’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 허물(히, 폐샤아), 죄(히, 하타아), 정죄(히, 아온). 이 단어들은 동일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데 ‘강조’를 위해 반복하여 사용되었다.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고 거기서 이탈해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5절)

시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그 놀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더 이상 나올 진액이 없을 만큼이었다(여름 가뭄에 마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뇌와 황폐함을 뜻한다. 그러나 자백하는 즉시 주께서(히, 웨아타) 죄악을 ‘사하셨다(히, 나사타).’ 이는 ‘죄의 짐을 짊어진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죄를 ‘들어 올리실(lift up)’뿐 아니라 ‘들어 올려 내어 버리신다(lift away).’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원하신다. 진실 된 관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대속적 죽음을 이루셨다.